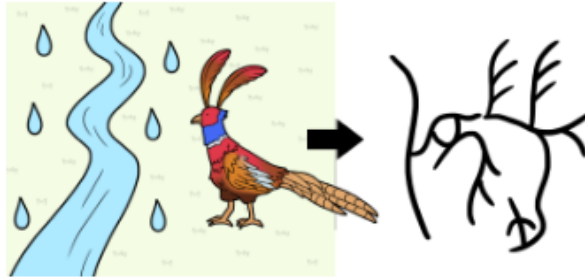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濯

씻을 탁

濯자는 '씻다'나 '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濯자는 水(물 수)자와 濯(핑 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濯(핑 적)자는 공지가 긴 핑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깃털이 함께 그려진 濯자를 응용해 새가 날갯짓한다는 뜻으로 응용되었다. 새는 가끔 물가에서 날갯짓하여 벌레나 먼지를 털어내곤 한다. 그래서 濯자에 水자가 더해진 濯자는 새가 물가에서 날갯짓으로 몸을 깨끗이 하듯이 무언가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뜻으로 쓰인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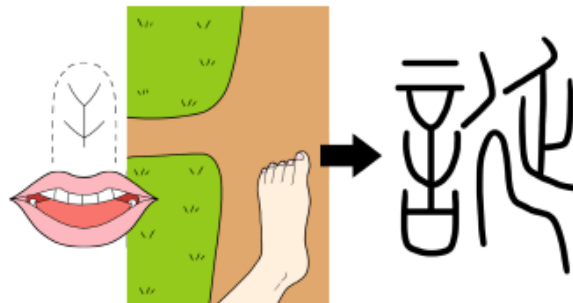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誕

낳을/거  
짓 탄:

誕자는 '태어나다'나 '거짓'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誕자는 言(말씀 언)자와 延(끌 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延자는 발을 길게 늘어 걷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誕자는 이렇게 '늘이다'라는 뜻을 가진 延자와 言자가 결합한 것으로 '말을 길게 늘이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誕자에서 말하는 '말을 길게 늘이다'라는 것은 남을 속이기 위해 이리저리 말을 늘어놓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誕자는 본래 '거짓'을 뜻했지만, 후에 '말을 만든다'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태어나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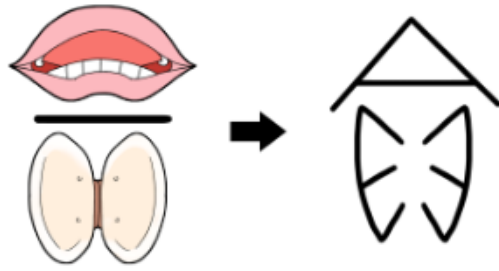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貪

탐낼 탐

貪자는 '탐내다'나 '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貪자는 今(이제 금)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今자는 입을 거꾸로 그려 무언가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貪자는 이렇게 무언가를 삼키는 모습을 그린 今자에 貝자를 결합한 것으로 재물을 집어삼킨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貪자는 재물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탐내다'나 '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貪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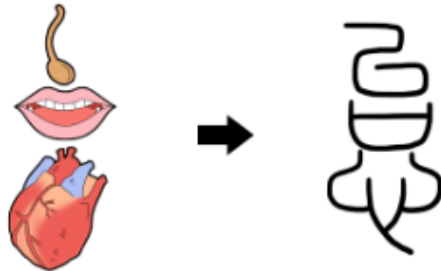
貪

소전

貪

해서

형성문자①



怠

게으를  
태

怠자는 '게으르다'나 '거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怠자는 怠(별 태)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怠자는 수저를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다. 怠자는 게으른 성품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心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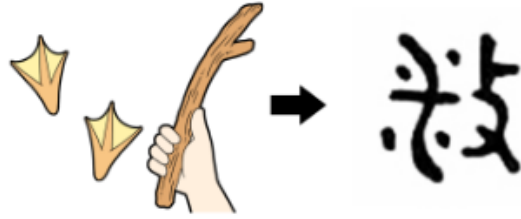
怠

소전

怠

해서

회의문자①



播

뿌릴  
파(:)

播자는 '퍼뜨리다', '달아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播자는 手(손 수)자와 𣎵(갈마들 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금문에서는 攴(칠 복)자와 采(분별할 번)자가 𣎵 그려진 형태였다. 여기서 采자는 동물의 발자국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뭉둥이를 들고 동물을 뒤쫓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다. 소전에서는 采자가 𣎵자로, 攴자는 手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播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播자는 본래 '달아나다'나 '도망하다'로 쓰였었지만, 후에 동물의 발자국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모습에서 '퍼뜨리다'나 '뿌리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𣎵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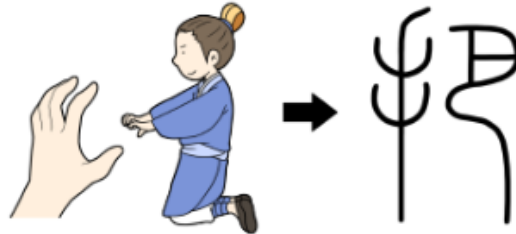
播

소전

播

해서

회의문자①



把

잡을 파:

把자는 '잡다'나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把자는 手(손 수)자와 巴(꼬리 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巴자의 사전적 의미는 '꼬리'이지만 갑골문에 나온 巴자를 보면 손을 뻗고 있는 사람을 𣎵 그렸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무릎을 꿇고 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잡을 것만 같다. 把자는 이렇게 손을 뻗은 모습을 그린 巴자에 手자를 더한 것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는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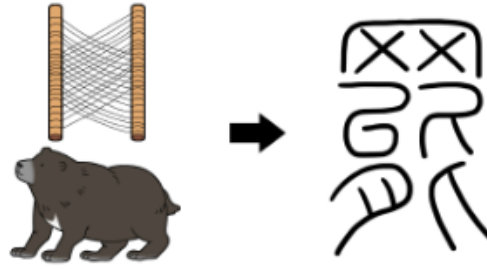
把

소전

把

해서

회의문자 ①



罷자는 '놓다'나 '방면하다', '그만두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罷자는 罒(그물 망)자와 能(능할 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能자는 곰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罒자가 결합한 罷자는 마치 그물로 곰을 잡은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罷자는 본래 '큰곰'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뜻이 바뀌면서 '방면하다'나 '그만두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큰곰'을 지위가 높은 사람에 비유해 죄를 지어도 금방 풀려난다는 뜻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참고로 '큰곰'을 뜻했던 罷자의 뜻이 바뀌면서 여기에 灬(불 화)자를 더한 𪔐(큰곰 비)자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罷

마칠 파:

罷

소전

罷

해서

회의문자 ①



頗자는 '자못'이나 '꽤', '매우', '비뚤어지다', '편파적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頗자는 皮(가죽 피)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皮자는 동물의 생가죽을 벗겨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頗자는 이렇게 생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그린 皮자에 頁자를 결합해 마치 얼굴을 일그러트리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頗자는 사람의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頗

자못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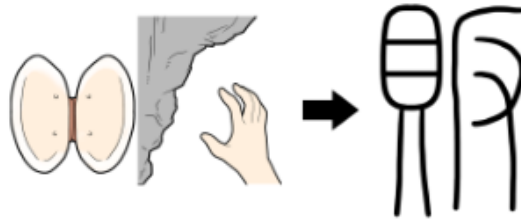
頗

소전

頗

해서

회의문자①



販

팔[賣]  
판

販자는 '팔다'나 '사다', '장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販자는 貝(조개 패)자와 反(되돌릴 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反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뒤집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되돌리다'나 '반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 장사라는 것은 물건을 사서 되파는 것을 말한다. 내가 물건을 먼저 사야 다른 사람한테도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販자에 쓰인 反자는 발음역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물건을 사고 되파는 것을 뜻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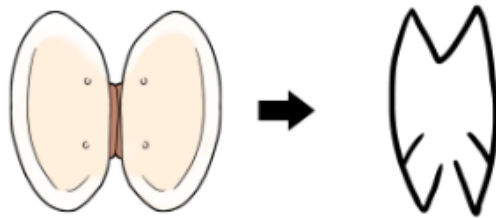
販

소전

販

해서

상형문자①



貝

조개 패:

貝자는 '조개'나 '재화'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貝자는 껍질이 벌어진 조개를 그린 것이다. 소전에서는 조개의 입수관과 출수관이 표현되었지만, 갑골문에서는 조개만 간단히 그려져 있었다. 한때 중국에서는 마노 조개를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貝자는 '재물'이나 '화폐'와 관련된 뜻을 갖게 되었다. 마노 조개는 중국 남부나 인도양에만 있는 조개로 당시 중국 내륙에서는 접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던 것이다. 그래서 貝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조개'보다는 화폐나 재물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貞(곧을 정)자나 則(법칙 칙)자와 같이 鼎(술 정)자가 貝자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貝

갑골문

貝

금문

貝

소전

貝

해서